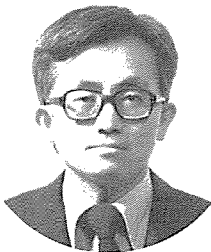


大院君 李昰應

알려진 사실보다
科學技術에 더 관심



朴星來
(韓國外國語大교수·科學史)

大院君을 과학자나 기술자라 부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 高宗임금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大院君이란 칭호를 얻은 그의 이름은 李昰應(이하응, 1820~1898)이고, 정식 칭호는 興宣大院君이었다.

대원군 또는 이하응은 그의 12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자 꼭 10년동안 朝鮮왕조의 실권을 장악하여 세도를 부렸다. 특히 그가 지배한 1864년부터의 10년 간은 그의 鎖國정책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 오늘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大院君

은 과학자·기술자는커녕 근대과학의 도입을 방해한 원흉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기 전의 李昰應은 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근대과학에 큰 관심을 보였던 實學派 학자들과 사귀는가 하면 그의 부인과 하녀들은 천주교를 믿은 것으로 전해질 정도였다. 이런 상태가 執權 뒤에까지 지속 됐더라면 대원군은 곧 나라의 문을 열고 근대의 과학과 기술을 배워 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원군은 집권하자 곧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벌였고, 鎖國정책을 폈던 것이다.

하지만 대원군의 행적을 살펴 보면, 그가 서양기술의 도입에는 제법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서양의 무기를 흉내내어 만들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음이 들어나고 있다. 대원군의 지휘아래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식 대포와 서양식 군함이 만들어지거나 운전되었다. 또 서양식 어뢰 같은 무기도 만들었고, 서양 함선의 충격을 막아 보려고 『나르는(飛船)』와 『솜 누비 갑옷(綿布背甲)』도 만들어 보았다.

서양식 대포를 만들었다는 것은 실은 따지고 보면 별 애깃거리가 못된다. 그가 집권했을 때에는 이미 적지않은 서양배가 우리 해안에 난파해 온 뒤였고, 서양식 대포를 얻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원군은 국방을 위해 그런 것을 흉내내 만들게 했으니까 별로 신기할 것 없는 일이다.

大同江에 난파한 汽船을 漢江에서 복구시운전

서양식 汽船을 만든 것이 대원군이라면 아마 깜짝 놀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은 대원군이 汽船을 만든 것은 아니고, 大同江에 난파한 서양 배를 서울로 끌어와서 그걸 漢江에서 처음 움직여 보았다는 뜻이다.

大同江에 좌초한 서양기선이란 다름아닌 1866년 서면호 사건을 이룬다. 당시 平安監司는 朴珪壽였는데, 이 사람은 실학파의 대학자 燕

峇 朴趾涼의 손자였다. 大院君 집권기에 여러 고위관직을 거친 그는 뒷날의 開化 사상가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여하튼 대원군은 대동강에서 끌어 온 汽船을 고치게 한 다음 여기에 숯불을 지펴 漢江에서 시운전을 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고장난 배였는지는 모르지만 수리도 시원치 못했을 것이고, 게다가 석탄도 없이 숯을 때었으니 火力이 절대 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선체는 잔뜩 무거운데 터빈의 힘은 너무 약해서 1분에 10步 남짓을 움직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아서 수 10만냥의 자금을 들이고, 무기고에 있던 구리와 쇠를 총동원해서 기선을 다시 고쳐 시험해 본 것이 이모양이었다.

대원군은 進水式에 친히 나왔다가 그만 이런 꼴이 되자 기분을 잡쳤지만 끝내 후회하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 책에는 적혀있다.

어뢰인 水雷砲와 飛船을 제작케 했다

이에 비하면 水雷砲라는 어뢰의 제작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훈련대장 申觀浩가 감독해 만든 이 물속에서 쏘는 대포는 1867년 9월 漢江의 노량진 강 위에서 처음 시험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임금과 大院君,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수뢰포를 발사하자 한강 가운데에 띄워 놓은 작은 배가 열 길 이상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水雷砲는 <海國圖志>란 책에 실려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만들어 본 것이다. 이 책은 이미 20여년전에 魏源이란 중국학자가 쓴 것으로 서양의 문물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서양의 총포에 뱃전이 부서져도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학같이 큰 새의 깃털로 엮어 배를 만들면 총알을 맞아도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전국의 포수들을 동원하여 학을 잡고 깃털을 모아 뱃전에 빙둘러 놓

았다. 그러나 이 배가 한번 강물에 들어가자 아교로 붙여둔 깃털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아무 쓸모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것이 소위 大院君이 만든 『나르는 배(飛船)』의 정체였다. 내용을 모른채 잘못 전해져 많은 책에는 대원군이 무슨 비행선(飛行船)이라도 만들어 본듯이 적혀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늘을 나르려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나르는 배(飛船)』란 이름은 이름부터 좀 잘못 지어진 셈이랄까.

방탄복인 綿布背甲을 砲軍에게 입혀 훈련

『솜 누비 갑옷(綿布背甲)』 역시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험된 것이었다. 무명을 12겹 포개어 솜을 두었더니 총알이 뚫지 못하더라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대원군은 이를 갑옷으로 만들라 명령했던 것이다. 면포 13겹에 솜을 둔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등(藤)나무 투구까지 쓴 砲軍들이 훈련을 받았다.

여름에는 더위에 못견뎌 코피를 쏟는 병사가 많았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이 갑옷은 실제로 사용된 경우였다.

大院君이 널리 인재를 모으려고 애썼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살고있던 雲峴宮에는 온갖 재주꾼이 날마다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기운이 장사라고 선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의 관심을 얻기도 했다.

大院君은 과학자도 기술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鎖國으로 이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얽매어 놓는 나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나라의 문물 굳게 닫은 것은 國基 자체가 흔들려 쓰러질 것을 걱정했던 때문이지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모르고 있었던 때문은 아니었다.

그때 그가 좀 더 열심히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같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